

지하철 2호선 2단계 개통 결국 '1년 지연'

7·10공구 수의계약에도 업체 선정 실패...2030년 완공 목표
사업비 증액·설계 변경 불가피...市 "정부와 협의 공사 진행"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 말에서 2030년 말로 결국 1년 지연될 전망이다. 계약 방식을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했음에도 난공사 구간인 7·10공구 시공 업체 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 구간에 대해 지난 8월30일 5번째 공시 유찰을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 업체는 없었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비 증액, 현재 공사 방식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시공 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선정 절차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남대 주변 구간인 7공구의 경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협의 거쳐 사업비 증액을 통해 기존 개착 방식(복공판 설치)이 아닌 터널 방식(복공판 없이 정거장 기준 땅을 파낸 뒤 공사)으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공사 방식을 변경하면 약 200~300억원의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본촌산단을 통과하는 10공구의 경우 지하에 하수박스가 있어 우회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공구에 대한 업체 선정이 늦어진 데다, 사업비 논의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개통 시기는 당초 2029년 말에서 2030년 말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 일곡·첨단·수원·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20.046km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3천288억원(국비 7천937

억원, 시비 5천291억원)이다. 7·10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7·10공구는 도로가 좁고 지장물이나 주변 노후 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큰 '난공사' 구간이다. 이 때문에 공사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5차례 입찰 모두 유찰된 바 있다. ▶2면에 계속 /박성각기자



대학가 가을축제 한창 요즘 대학가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가을축제가 펼쳐져 활기가 넘치고 있다. 5일 개막한 전남대학교 '용봉대동놀이'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내 민주마루 앞 광장에서 로데오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 수업대전환 선도 미래교실 토론회

11월18일 오후 3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광주매일TV·전남도교육청 유튜브로 생중계

광주매일신문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전남 수업 대전환을 위한 '2030 미래교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전남도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는 오는 11월18일 오후 3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 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 수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립니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실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는 광주매일TV와 전남도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미래교실 관계자는 물론, 광주·전남 사·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주 제: 전남 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 수업의 방향
- 일 시: 2024년 11월18일(월) 오후 3시
- 장 소: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 주제발표: 이인숙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
- 토 론: △좌장: 이인숙 교장 △토론자: ▲김진욱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보경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정나라 나주이화유치원 교사 ▲이지운 웅천초등학교 교사 ▲강지숙 매성중학교 교사 ▲강대혁 순천 미래과학고등학교 교사 ▲이희진 전남 학부모회연합회장
- 주 최: 전남도교육청
- 주 관: 전남도교육청·광주매일신문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광주매일신문

尹대통령, 내일 현안 입장 밝힌다

명태균·윤여사 의혹 등...질의응답 시간 제한 없이 진행

국정 지지를 1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과 8월 열린 대국민 담화·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분 이상 국정 성과와 위주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공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하자 직접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제별로 질문에 답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시간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아 대답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Today

광은 '희망공부방' 100호점 탄생 12면
'예술을 선물합니다'...'전도민' 14면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은? 16면

해리스 vs 트럼프 '미국의 선택' 전세계 촉각

美대선, 선거인단 과반 270명 확보시 승리...7개 경합주 주목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시간) 뉴햄프셔주의 디스빌노치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관련기사 11면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인 디스빌노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에 투표소를 열고 투표

의 첫 테이프를 끊어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투표는 주(州)별로 투표 시간이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오전 5~8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에 마감하

게 되나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 중 한 곳인 서부의 네바다주는 가장 늦은 오후 10시에 투표소를 닫는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당선인 윤곽은 초박빙 승부와 우편 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 가능성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2020년 대선 당시 AP통신 등 주요 미국 언론은 선거일 4일 뒤에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공식 확인해 보도했다.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월 대통령 후보 사퇴로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된 해리스 부통령과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 잔류에 실패한 뒤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선거일 전날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세는 안갯속이다. /연합뉴스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광주·전남 관광대상 공모

광주매일신문과 한국관광연구회는 '제5회 광주·전남 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광주·전남 관광대상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 등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광대상 시상은 종합대상, 축제, 콘텐츠·MICE, 여행업, 숙박업, 특별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축제 등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광주 전남 관광대상 공모부문 및 시상

- ▶ 종합대상 부문
- ▶ 콘텐츠 MICE 부문
- ▶ 숙박업 부문
- ▶ 축제 부문
- ▶ 여행업 부문
- ▶ 특별 부문

접수자격 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dkyo@kakao.com
* 신청서는 화면 상단 관련 파일 다운로드 클릭

접수마감 2024년 11월 15일(금) 도착 분 마감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주최 | 한국관광연구회

주관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